

碩士學位論文

주식투자는 이렇게 하라

(株はこうして買いなさい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日科

金京姬

2010年 2月

주식투자는 이렇게 하라

(株はこうして買いなさい翻譯論文)

指導教授 李 禮 安

金 京 姬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金京姬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0年 2月

국문초록

본서는 초저리 금리시대에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의 특성을 지닌 주식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투자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식은 50%, 60% 때로는 두 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절반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 회사가 도산해 버려 투자한 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주식투자 초보자 중에는 한탕 크게 벌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행자금 마련 등 자신 나름대로의 목적을 정하고 투자 기준을 명확히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 기준을 지니지 못한 채,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해보자’ ‘남에게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권유 받았기 때문에 사자’ 에서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여유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안전한 투자만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의 제 1 조건은 현재의 생활, 저축, 그것에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여유가 있을 것’이며 제 2 조건은 주식투자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부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소중한 돈이 절반 이하로 되어 버린 비참한 예가 많이 있었기에 주식의 기초 지식을 모른 채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주식투자를 할 때는 눈여겨 본 종목의 주가 동향만이 아니고 시장 전체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별종목 동향은 시장 전체의 흐름, 그 기업이 속한 업계 전체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전체에 자금이 그다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상 실적이 다소 좋아도 주가는 그에 상응할 만큼 오르지 않고 거품 붕괴 이후처럼 일본 전체가 불황일 때에는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에 전혀 몰리지 않아 시장전체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초저리 금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식에 대한 기대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반드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주식투자의 또 한가지 특징이기는 하지만 전 재산

을 주식투자에 쏟아 붓는 것은 안 된다. 우선 여유자금일 것이 제 1 조건이다. 예비생활 자금, 2~3년 안에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주택취득용 자금, 자녀교육비 등을 확보한 후 그 나머지가 투자해도 좋은 금액이다. 30대라면 여유 자금은 적더라도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수입도 지금부터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실패 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도 괜찮을 것이다.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유자금 액수는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연금 생활을 시작할 시기라면 여유자금 전체에서 본 주식투자 비율은 20%정도로 억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는 언제나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있기 때문에 초보투자자는 주식투자를 할 때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자서문

최근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식을 비롯한 재테크이다. 방송에서 스스럼없이 전문적인 주식 투자가가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니 그 열기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투자에 비해 주식은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그 열기의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럼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하려는 초보 투자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물론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공부가 필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역은이인 기타하마류이찌로우(北浜流一郎)는 게이오 대학 상대 중퇴 후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중 발표한 소설의 인세로 30년 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다. 그 후 전문적인 주식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심플한 투자법(シンプルな投資術)』 『그림으로 보는 주식의 기초(図解株のいろは)』 등을 발표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저널리스트인 다카하시노부코(高橋伸子)와의 대화가 8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다. 여기서도 약간은 언급되어 있듯이 그는 더 이상 주식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를 눈여겨보라고 한다. 아무리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며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 품목들과 그런 품목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주시할 것을 권한다.

본문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여기서는 1장 주식투자 마음가짐 편과 2장 주식투자의 기초지식편을 실었다.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 운영체제는 그 지역의 특별한 점을 감안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주식이란 무엇인가? 기관투자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등의 기초지식은 세계 어느 곳이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했다. 1장과 2장을 읽고 난 후 구체적인 각국의 주식시장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하는 편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들은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위험하다고 피할수 만은 없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왕 주식 매매를 해보기로 결정했다면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즐기면서 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저자서문

●작년부터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놀랄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사람도 시세도 10년이 지나면 변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가쓰 카이슈¹⁾(勝海舟)이다. 정말로 가쓰 카이슈(勝海舟)가 말한 그대로였다. 닛케이 평균 주가가 1989년 12월 3만 8915엔²⁾을 정점으로, 90년 새해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지 약 10년이 지났다. 도쿄시장은 지금 간신히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지금까지 타격을 받아서 도쿄시장은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할 것 같은 국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가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주가하락이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거품시기 또는 그 이전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의 대다수는 너무나 힘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조금 호전되어도 여전히 불안감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그 결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식투자 베테랑들이 좀처럼 손해를 만회할 수 없는데 비해 작년부터 새로이 주식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놀랄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경우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주식투자 세계에서도 신흥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데 반해 구세력이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최대요인은 시대와의 공존이 잘되지 않는 것에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자동차 판매라면 신차 딜러보다도 중고차 딜러의 존재가 중요해졌고, 소매라면 백화점과 슈퍼, 편의점보다 가전양판점과 할인판매점, 드러그 스토어(약국) 등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역주 1) 카쓰 카이슈(勝海舟, 1823-1899년) 막부말기의 개화적인 인물

역주 2) 종전직후의 360엔을 시작으로 버블시기에는 사상 최고치인 38,915엔을 기록했다. 당시 3,8,9,1,5 (산,하찌,구,이찌,고)를 흉내내 뜻이 전혀 다르면서 발음이 비슷한 신조어구 産婆食い殺す(산과구이고로 스)가 유행했었다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이다. 투자대상으로서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규동³⁾전문점과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회전초밥 체인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은행보다도 소비자금융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손님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어 불황과 무관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40만엔의 종목이 반년에 5000만엔이 된 예도 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은 잘 할 수 없다. 주식이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순간의 꽃’이다. 그 시대의 ‘꽃’을 발견하여 투자를 하므로써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도쿄시장을 둘러보면 시대의 꽃은 이미 피어 만발해 있고 이후도 새로운 꽃이 개화하게 된다. 내가 추천했던 종목에서도 연간 2배 이상이 된 종목은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5배 이상이 된 종목도 많고 골드크레스트(ゴールドクレスト)라는 장외주식(현재는 도쿄 증권거래소 2부)에 98년 말 140만엔 정도를 투자한 사람은 반년 후에는 5000만엔 이상의 자산가로 변신했다. 500만엔이 아니다. 5000만엔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면 돈키호테 주식⁴⁾을 60만엔으로 구입한 사람은 450만엔이 되어 주식투자의 진정한 맛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다른 많은 종목은 계속하여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이다. 일본주식은 놀랄 정도의 파워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일본주식 드림!’

이렇게 부르기에 어울리는 상황이 다가 오고 있다.

더구나 시대의 시스템도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 당연히 재테크의 시스템도 변해야 하며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지금은 종래의 아날로그적인 재테크⁵⁾로부터 디지털적인 재테크⁶⁾로 변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역주 3) 일본인이 주로 먹는 쇠고기 덮밥

역주 4) 2000년 주식을 상장하여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는 연 매출액 2000억 엔 이상의 할인 전문 판매점

역주 5)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로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과거의 수동적인 방식의 재테크

역주 6) 수동적인 방식의 재테크에 반대되는 정확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재테크

●시간이 최대 아군이었던 아날로그적인 재테크 시대는 끝났다.

아날로그적인 재테크에서는 시간이 최대의 아군이였다. 시간을 들여 차분히 자산을 늘이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그리고 임금의 상승시스템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들이 있어서야 비로소 아날로그적인 재테크는 그 나름대로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주요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세트 시스템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이상 재테크 시스템만은 종래형이 낫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보통신 세계에서는 지금은 아날로그가 디지털에 의해 대체되었다. 재테크에서도 디지털적인 사고방식과 디지털적인 시스템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디지털에는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정보를 동시에 여러 군데에 보낼 수 있다’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팩스로 한 번에 100군데에 보내는 기술이 그것이다.

결국 동시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에 의해 시간 단축과 작업 경감이 가능해졌다. 이런 특징이 재테크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재테크는 자신의 본업을 가진 가운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루어진다. 저축을 한다면 그 사이에 이자가 붙어 당연히 자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이에 자금이 동시 진행적으로 일해 주지는 않는다.

이것으로는 재테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투자에서라면 어떤가? 주가는 기업의 경영진과 사원들이 시대에 적합한 경영을 하고 열심히 일해 준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밝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간다.

●적어도 운영자금의 일부에 주식을 플러스해야만 한다.

그런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그 사회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자금이 허락한다면 1개사만이 아니라 동시에 몇 군데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동시 진행적으로 자금을 늘이는 재테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위험도 있다. 그 때문에 주식투자의 위험에 대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⁷⁾이라는 표현이 매년 반복되어 투자가를 읊아매어 왔다. 지금처럼 도쿄 주식거래소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기본 원칙을 근거로 투자하면 진정한 주식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⁸⁾’이 될 수 있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 디지털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테크도 또한 주식투자를 주체로 할 것인가? 여기에 반대의견이 있다면 운영자금의 일부만이라도 주식투자를 더 해보는 것으로 바꿔보는 편이 유리한 것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北浜流一郎⁹⁾



역주 7) 고위험 고수익

역주 8) 저위험 고수익

역주 9) 기타하마류이찌로우(北浜流一郎) 1943년 가고시마 출생, 주식평론가

목 차

국문초록
역자서문
저자서문

제1장 주식투자 마음가짐 편.....1

- 당신은 주식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
주식투자를 ‘금방 시작해도 괜찮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둬야 하는 사람’
- 주식투자, 초보자가 시작해도 좋을까?
초저리 금리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주식투자는 매력이 가득!.....2
阿部智沙子(저널리스트)
- 칼럼‘증권회사가 만약 도산한다면 맡겨둔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14

제2장 주식투자의 기초지식 편.....16

- 주식이란 무엇인가? 증권회사란 어떠한 곳인가?
새삼스레 질문할 수 없었다! 원숭이라도 알 수 있는 주식투자 'Q&A'
- 주식투자의 기본을 알자
도대체 주식투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Q&A로 알 수 있는 주식투자의 기초지식.....17
堀内玲子(파이낸셜 플래너)
- 소니(ソニー)도 아지노모토(味の素)도 모두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18
- ‘주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19
-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21
- 주가는 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가?.....21
-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23
- 은행과 증권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역시 은행 쪽이 ‘안전’한가?.....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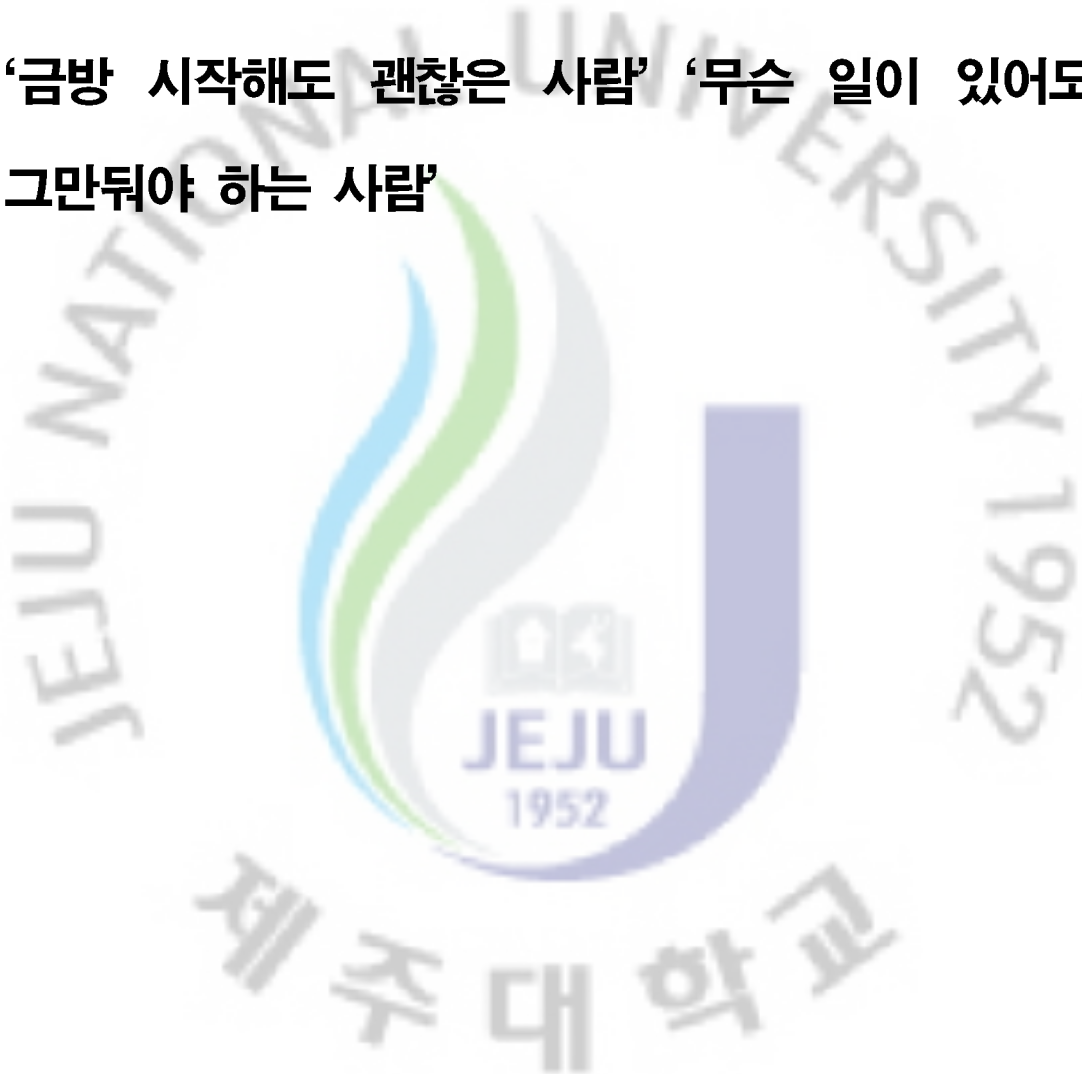
• 여러 증권 회사가 있지만 어떤 증권회사와 거래하면 좋은지?.....	26
• ‘주식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상장’하는 이점은?.....	28
• 뉴스에서 흔히 듣는 ‘닛케이(日経) 평균’이란? TOPIX와 NY다우존스지수와는 어떻게 다른가?.....	30
• 만약 본인이 매수주문을 했을 때, 어떤 구조로 거래 가격이 결정되는가?.....	31
•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쯤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32
• 전문가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주가 예측, 초보자는 무엇을 참고로 하면 좋은지?.....	34
• 무엇을 참고로 종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영업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도 되는지?.....	35
•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만약 도산했을 때 그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36
• 주주의 이점중 하나는 ‘배당’,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7
• 미국주식은 호황이라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해외주식을 살 수 있을까?.....	37
• 주식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기관투자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39
• 칼럼‘동료와 의논하며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클럽’의 이점과 단점’.....	40
日本語抄録.....	42

제1장 주식투자 마음가짐 편

당신은 주식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

주식투자를

**‘금방 시작해도 괜찮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둬야 하는 사람’**



주식투자, 초보자가 시작해도 좋을까?

초저리 금리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주식투자는 매력이 가득!

‘주식이란 투기꾼 같은 사람들이 도박 감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주식투자 세계는 그러한 ‘무서운 세계’가 아니고 희망에 넘친 ‘지적 세계’이다. 지금 초저리 금리라고 한탄하기 전에 금융상품 중 하나로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다만, 주식투자에 적합한 사람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당신의 주식투자 적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도 준비했다.

阿部智沙子(저널리스트)

도쿄(東京)에 사는 A씨(35세)는 대단히 여행을 좋아한다. 부부 두 사람이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A씨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다. A씨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요전번에는 카리브 해에 갔었고, 이번에는 하와이에 간다고 한다.

‘여행 자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도 좋다.

어떻게 여행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가? 물어 보고는 놀랐다. “직장 다닐 때부터 주식을 하여 그 수익으로 언제나 여행을 갔어요. 원금은 200만엔으로 ‘싸네!’ 라고 생각될 때 주식을 사두고 항공료가 마련될 정도가 되면 팔아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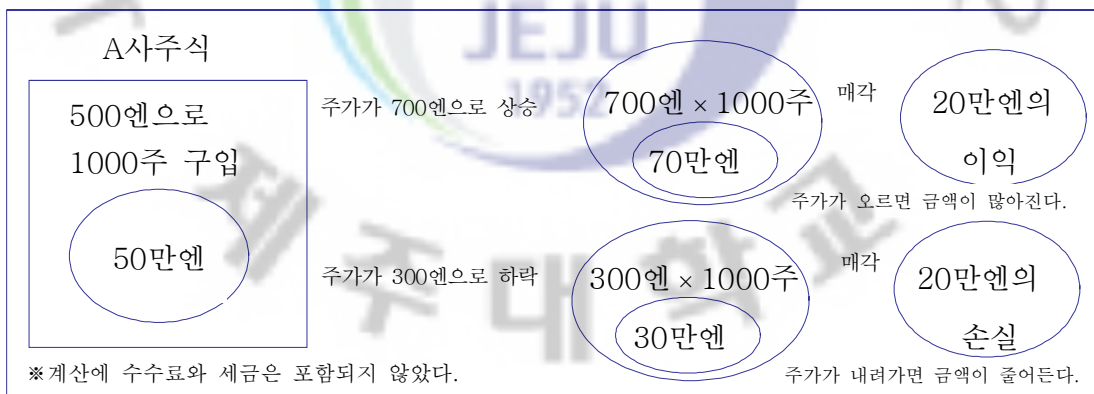
결국 수익이 많을 때는 유럽여행을 가고, 그다지 수익이 많지 않을 때는 저렴한 하와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 그런 마인드로 했어요.”

주식 투자라고 하면 ‘한탕 크게 벌해보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행자금 마련 수단으로써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기한 것이 아니다. A씨처럼 ‘주식투자는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정하지 않아도 99년 3월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이 두 배가 되었을 때 팔아서 유럽일주여행을 간 노부부와 주식투자자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명품을 사는 직장여성 등 모두가 각각 주식투자 수익을 나름대로 즐기며 사용하고 있다.

본래 주식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식을 매매 하는 행위이다. 팔 때의 가격(株價)이 구입시 보다 높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 이익은 얼마가 될까? 그것은 주식을 매수한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20%가 될지, 30%가 될지 또는 2배가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예금이자인 0.1%나 0.05%보다는 훨씬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림1> 주가 변동으로 손익이 결정된다.



주식투자는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해준다. 때로는 ‘돈’이 ‘돈’을 벌게하자

자신이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인간이 일하는 데에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능력과 시간의 한계도 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일하여

벌어들인 돈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주식투자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게 해줄 가능성을 담고 있다.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주식을 사면 가격상승으로 자신이 벌어들인 돈에 $+ \alpha$ 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구입할 때의 가격보다 그 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은 감소해 버린다. 그러므로 안이하게 ‘주식투자를 하면 어쨌든 돈은 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돈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거듭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반면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주식투자로 자신의 능력 이상인 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인가 하면 여러 사람의 힘이 거기에 추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했다고 하자. B사의 사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여 회사수익이 많아지면 주가도 오르게 된다. 그 외에 B사의 수익이 많아질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장래성을 사려고 B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살 수 있는 주식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오른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늘어난다. 바꾸어 말하면 B사의 사원들, 또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일하여 번 자산을 증식시켜 주는 구조가 된다.

주가가 올라 기쁜 것은 주주만이 아니다. 회사의 신용도가 오르고 사원도 자산이 증가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와준다고 하면 웬지 자신만 편안히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만 편안히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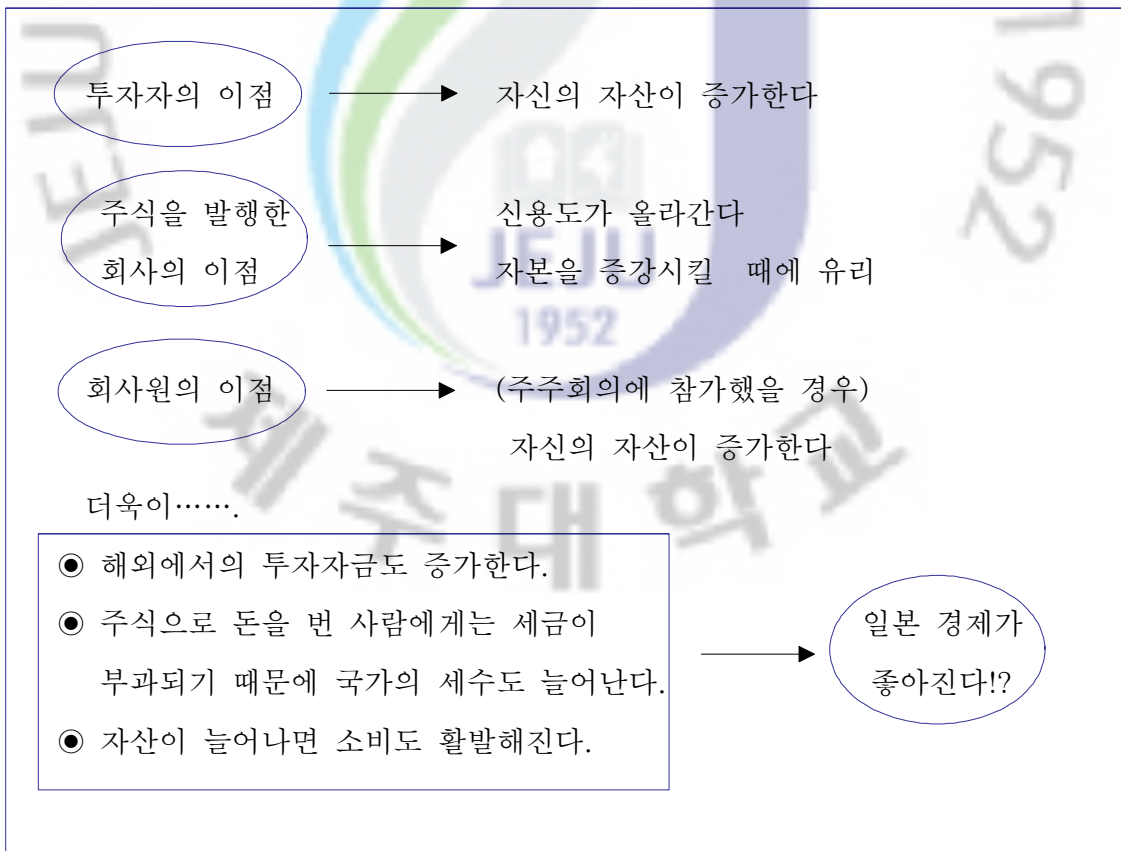
예를 들어 주가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라면 ‘저 회사는 위험해’라고 여겨져

그 누구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므로
주식도 팔리고 주가도 오르는 것이다.

게다가 주가가 오르면 ‘저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회사다’라고 신용도가
올라가 거래하기 쉬워지는 등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또 자본
증강시에도 유리하다. 사원 중에는 자사주를 구입하여 주주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산도 늘어나게 된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쪽의 주가는
올라간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이다. 그러므로 주식을 사는 것은 적은 힘이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셈이다. 물론 그 회사 주식을 산 다른 투자자 입
장에서도 새롭게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반갑고 자신도 주가가
오르면 만족하는 호순환(好循環)이 만들어진다.

<그림2>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



주식만큼 구조가 단순 명쾌하고 ‘안전’한 금융 상품은 없는가?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¹⁰⁾, 결국 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하락할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쉽다. 그 중에는 ‘어쨌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로부터 듣고 자라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주식은 50%, 60% 때로는 두 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절반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 회사가 도산해 버려 투자한 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인 금융상품이지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그 가격의 흐름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신의 자산이 30% 줄어든 경우라도 왜 줄어들었는가 하면 ‘투자한 C사의 주가가 30%가 내려갔기 때문에’라고 금방 알 수 있다. 그 회사의 주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 팔자’라고 자신이 판단할 수 있고 손해를 본 경우라도 ‘아 그때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반성도 할 수 있다.

세계의 금융상품을 둘러보아 이 정도 가격 변동을 알기 쉬운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은행예금을 보자. 예금이란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그 빌려준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빌려준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어떤 결과가 될지도 모르며,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이자는 0.1%입니다’라고 하는 숫자뿐이다.

투자신탁처럼 맡긴 돈을 전문 운용자가 운용해 주는 상품은 어떠한가? 국내외 여러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해주고 그 결과가 ‘기준가액’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표되고 있지만 어째서 그 기준가액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알 수 없다. 심한 경우는 ‘자금의 80%는 미국의 갑(甲)이라는 회사가 운용하고 20%는 을(乙)이라는 회사가 외국 투자고문회사 여러 곳에 배분하여 그 회사가 선물거래를 해주는 고수익을 노린다’라는 상품이 있다. 도대체 자신의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그러한 결과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역주 10) 고위험 고수익

게다가 ‘운용해준다’라는 명목하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종사한다. 투자신탁인 경우라면 운용회사, 모아진 돈을 관리하는 신탁은행, 사무적인 일을 하는 증권회사와 은행, 이러한 모든 것에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Cost)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도로를 건너갈 경우 ‘도로 건너기의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여 건너편으로 데려가 줄 것을 전면적으로 맡기는 것과 자신이 직접 자동차의 왕래 상황을 확인하며 건너편으로 건너는 것 어느 쪽이 안심할 수 있을까? ‘도로 건너기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문가 일지는 모른다. 도중에 ‘예상과 달리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만 두겠습니다’라며 그곳에 내팽개쳐질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가가 실패하여 자동차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더라도 보수를 지불한 후에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직접 확인하여 건넌다’라는 것이 주식 투자이고 ‘전면적으로 맡긴다’쪽이 예금을 포함한 그 외의 금융상품이다. 무엇이든 ‘자기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주식투자는 ‘자신이 납득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림3> 금융상품으로서 본 ‘주식’의 이점

- ①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② 투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 ③ 잘 되면 은행 예금의 금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④ 증권회사의 객장과 인터넷, 신문 등에서 주가를 항상 확인 할 수 있고, 자산의 증감(增減) 상황을 알기 쉽다.
- 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와 자신과의 사이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매매만 하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비용이 싸다.
- ⑥ 증권은 자신의 것이다.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만일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회수 할 수 있다.

아무리 흥미와 의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람은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적합, 부적합’이 있는 것은 주식투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편이 나은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편이 나은 사람’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떤 타입일까? 우선은 아래의 ‘적성 체크’에서 yes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기 바란다. 13개 이상 yes가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는 편이 나은 사람, 10~12개는 해도 좋은 사람, 5~9개는 조금 신중하게, 4개 이하인 사람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1 또는 0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주식투자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시작할 때에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주식투자에서 말한다면 자금이 줄어들어 버려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월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식투자로 돈이 줄어들어 버리면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비록 저축이 있어도 그것이 아이들 교육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돈이라면 그 돈이 줄어들면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또 돈이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게 되면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이럴 바에야 은행예금으로 맡겨두는 편이 나았다’라는 등 불평불만을 한다. 이러한 불평불만을 듣게 되는 사람은 대단히 성가시다.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의 제 1 조건은 현재의 생활, 저축, 그것에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여유가 있을 것’이다.

제 2 조건은 주식투자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부다. 은행예금 금리에 불만이 없으면 일부러 주식투자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고 그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실적은 어떻게 될까?’이므로 기업 실적과 관계된 경제 뉴스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 신문과 뉴스를 보는 것도 좋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즐겁고, 신상품이 나오면 사보고 싶어지는 사람이라면 주식투자를 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또 한 가지 조건을 든다면, 일본기업(또는 일본경제 전체)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주식투자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일본경제는 이제 안 돼’라든가 ‘일본 기업은 점차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릴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낫다. 지금은 불경기라고 말할 하지만 ‘이 시기를 극복하여 일본기업과 일본경제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자신 있게 일본주식에 투자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림4> 당신의 주식투자 적성 체크!

체크란		
1	지금의 초저리 금리에 참을 수 없다.	
2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이 걱정이다.	
3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	
4	1년간 100만엔 정도는 저축으로 꾸려 나갈 수 있다.	
5	사용하는 목적이 없는 돈이 100만 엔 이상이나 있다.	
6	다소 돈이 줄어들어도 고통스럽지 않다.	
7	부채(주택 대출금도 포함)가 없다.	
8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해도 돈을 빌리면서 까지 사려고는 하지 않는 타입이다.	
9	신문, 뉴스는 잘 보는 편이다.	
10	타인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의심하는 성격이다.	
11	신상품을 시도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2	일본의 제조업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13	숫자를 보는 것이 괴롭지 않다.	
14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15	일본의 경제는 지금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yes의 수를 세어 봅시다.

yes가 13개 이상	주식을 시도해 보세요
10~12개	주식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5~9개	시작한다면 신중하게
4개 이하	주식은 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0~1개	절대로 주식은 하지 않도록

<그림5> 4개의 조건에 자신이 있다면 GO

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남에게 빌려서까지 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② 흥미를 갖는다	→ 흥미가 없으면 잘 되지 않는다.
③ 자신 일은 자신이 결정한다	→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④ 일본기업과 일본경제의 장래성을 믿는다	→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주식은 장기 보유하는 편이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신 나름대로의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갖자.

주식투자를 권하는 책은 많지만 그 중에 잘 나오는 것은 ‘단기적인 투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에 투자하자’라고 하는 어구이다. 그리고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소니(ソニー)는 1950년대는 주가가 200엔 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소니(ソニー)의 주가는 지금은 1만엔 이상이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자산이 50배로 증가 했어요’라는 의미로 이 사례가 인용되지만 정확히 말해 이 이야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좋아! 이 회사는 성장 할 거야’라고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물론 좋다. 그러나 어느 회사가 ‘헤이세이(平成11) 소니(ソニー)’일까. 그것을 직업으로 매일 분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알 수 없다.

주식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그 목적이란

역주 11) 헤이세이(平成)= 1989년~현재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회사를 응원하자’ 라는 것이라 해도 좋고 ‘기간은 별도로 어찌하든 좋으니 수익을 올리자’ 라는 생각이라도 좋다. 적어도 ‘장기적인 투자는 좋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은 안 돼’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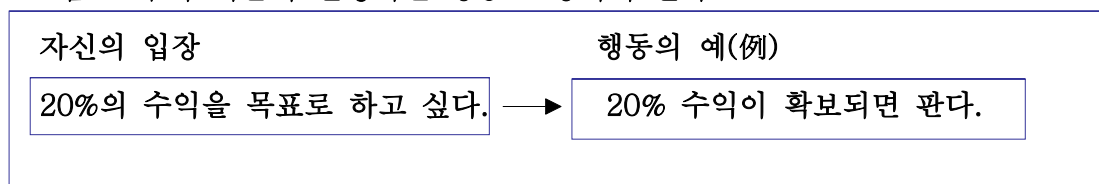
원래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고 단정 지어 버린다면 언제까지라도 현실적인 수익은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유 하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야마이찌(山一)증권의 주식을 1950년대에 사서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은 투자액이 0원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주식시장에서 ‘장기(長期)’라고 하는 것은 1~2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5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장기보유가 좋다’라고 해도 그 기준은 애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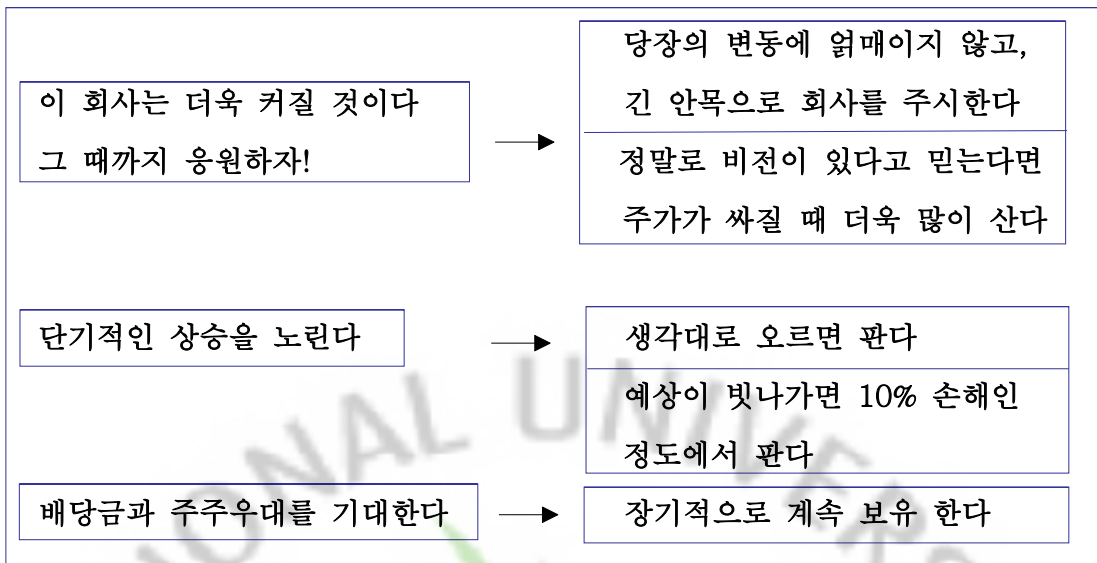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자신 나름대로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자신 나름대로의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간은 어찌되든 좋으니 30%의 수익을 노리자’라고 하는 생각이라면 ‘30%’에 도달하면 팔아버리면 된다. 앞에서 소개한 A씨가 ‘해외여행 항공료를 마련하자’라는 것은 매우 명확한 투자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기준을 결정하지 않고,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해보자’라든가 ‘남에게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권유 받았기 때문에 사자’ 라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목적도 없이 단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도 즐겁지 않고 열의도 뜨겁지 않다. 열의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열의가 있음으로써 ‘어느 회사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 인가?’에 대해서도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좋아하면 능숙해진다¹²⁾ 라는 말은 주식투자에서도 적용된다.

<그림6> 투자 기준이 결정되면 행동도 명확해 진다.



역주 12) 好きこそ物の上手なれ 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최초의 종목은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회사, 응원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주식투자에서 처음 부딪치는 벽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면 좋을까?’ 즉 종목 선택이다. 자세한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제6장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처음 시도는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파악하기 쉽다.

예를 들어 늘 구입하는 주방용품,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 ‘이 회사의 제품이라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가전제품 브랜드, 세계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도 좋을 것이다. 자신이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이 회사에서는 도저히 근무 할 수는 없겠지만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길 바라는 회사라도 좋다. 그 다음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쟁 회사와 업계 최고 회사도 정확히 파악하기 쉬운 것이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타인으로부터 ‘이 회사는 좋아요’라고 권유받거나 잡지 등에 나온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들어도 전혀 모르는 회사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영업은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와 ‘이 회사는 양반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회사의 주식은 사서는 안 된다. 가령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사는 결국 소비자의 반감을 사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지 예외를 든다면, 본래 도산되어야만 할 회사가 세금이 투입됨으로써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위험 상태였던 그 회사의 주가는 세금이 투입되면 틀림없이 급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쿄미쓰부시(東京三菱)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신탁은행 등 대형 은행에 7조 5천억엔의 세금이 투입되었는데 이 세금 투입을 계기로 바닥이었던 은행주의 주가가 급등했다. 1조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지(富士)은행 등은 400엔 안팎의 금액이었지만 900엔이 되었다. 결국 400엔으로 1000주를 사서 900엔으로 판다면 50만엔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은행 구제에 사용된 자금이 만일 60조엔이라고 한다면 국민 한 사람당 50만엔이 사용되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그 세금이 주식투자자로 회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실제로 이 세금이 투입되어 돈을 번 사람은 대다수가 일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이었다. 세금을 투입하여 외국인만 돈을 벌어들여 일본 납세자들은 손해를 보기만 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투자 기준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림7> 이런 회사를 주목하자

만들고 있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경하는 회사	다시 태어난다면 입사하고 싶은 회사
경영자의 사고방식에 감동한 회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쟁회사. 업계에서 ‘대단하다’라는 평판을 듣는 회사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 기술을 가진 회사

증권회사가 만약 도산한다면 맡겨둔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그 누구도 놀라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은행인 경우는 비록 파산하더라도 2001년 3월말까지는 원금, 이자와 함께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금을 맡겨둔 은행의 경영 상태에 민감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증권회사는 단순한 ‘중개창구’이다.

소유자는 투자자 자신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

투자자에게 있어 증권회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위한 ‘중개창구’이다. 투자자가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하는 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면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이 증권회사의 역할이다. 증권회사 자신이 주식매매로 이익을 올리거나 하기 위해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소유물’이 된다.

실제로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은 증권회사에 ‘보호 예치’라는 형태로 증권회사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증권회사는 단지 보관하는 것만으로 증권회사의 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결국 보호 예치하고 있는 주식은 비록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소유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가 입주하고 있는 빌딩 임대료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채권자와는 입장이 달리 원래 자신의 주식이기 때문에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식을 언제라도 살 수 있도록 ‘예탁금’으로 돈을 맡기고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이 ‘예탁금’은 증권회사의 자산으로서 계상(計上)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채무초과로 파산했었을 때에는 예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또 미니주식과 누적투자자와 같은 금융 상품은 증권회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증권회사 자산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 경우도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보호기금에서 ‘예탁금’도 보호된다.

만일을 위해 재무상황 체크도 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투자자보호기금’이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2001년 3월 말까지의 예탁금은 전액 보호되고 4월 이후는 1인당 1000만엔¹³⁾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거액의 예탁금을 맡기지만 않으면 우선은 괜찮은 셈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자기자본은 건설한지? 재무상황은 어떤지? 등을 조사해 보는 편이 낫다. 최근은 홈페이지에서 결산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증권회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두자. (阿部)

역주 13) 국내에서는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제2장 주식투자의 기초지식 편

주식이란 무엇인가? 증권회사란 어떠한 곳인가?

새삼스레 질문할 수 없었다!

원숭이라도 알 수 있는 주식투자 'Q&A'



주식투자의 기본을 알자

도대체 주식투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Q&A로 알수있는 주식투자의 기초지식

‘주식을 사보고 싶지만 초보자는 어려울 것 같아 손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초보자용으로 자주 나오는 주식에 관한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증권회사와 은행은 어떻게 다른가? 등 새삼스레 남에게 묻기 쑥스러운 질문들을 실어 보았다.

堀内玲子(파이낸셜 플래너)

주식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고 오르면 팔아라!’이다. 수익을 얻는 구조는 정말로 단순 명쾌하다. 단지 이것을 모두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역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모두는 진지하다.

거품시기에 주식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거품 붕괴로 소중한 돈이 절반 이하로 되어 버린 비참한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때는 ‘무엇을 사더라도 돈벌이가 된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다’라는 듯 주식의 기초 지식을 모른 채 누구나 주식투자라고 하는 머니게임(Money Game)에 손을 대어 버렸다.

그러한 무모한 투자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선 주식투자의 기초지식을 아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이 장(章)은 ‘주식이란 무엇인가?’ 따위의 새삼스레 남에게 질문할 수는 없지만 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주식 입문편이다.

주식에 관한 책을 손에 들고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아마도 ‘어느 종목이 지금부터

오를까?’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책과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주식투자의 철칙은 자신이 종목을 선택하고 자신이 매매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린다’가 아니고 기초 지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시작했으면 한다.

Q) 소니(ソニー)도 아지노모토(味の素)도 모두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회사 형태로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상호회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가장 대중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이다. 주식을 발행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자본을 모아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일본 기업 중에는 주식회사가 가장 많다.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본인 혼자서 자금을 충당할 수는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은 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금을 갖고 있기에 회사가 이익을 올리면 배당을 원한다’라는 사람들(= 투자자)로부터 자연스럽게 사업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주식회사이다.

주주가 된 사람은 기업실적이 올라가면 그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있다.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 매각 이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과 우체국 등에 맡겨져 있는 여유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처럼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변제할 필요가 없고 장기간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비로소 주식회사는 성립된다.

<그림1> 누구든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예(例)

소니(SONY)	히타치(日立) 제작소	도쿄 미쓰부시 (東京三菱) 은행	스카이 라쿠 (スカイラク)
----------	----------------	----------------------	-------------------

아지노모토(味の素)	도시바 (東芝)	아사히(アサヒ) 맥주	스미토모(住友)상사
미쓰코시 (三越)	도요타(トヨタ) 자동차	와코루 (ワコール)	이토요카도 (イトーヨーカ堂)
NTT	JR히가시니혼 (JR東日本)	후지TV	마쓰시타(松下) 전기사업

여기서 소개한 회사는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도쿄(東京)증권거래소 1부 상장 기업’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 기업도 많이 있다

Q) ‘주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출자해 준 사람에게 그 출자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주주)은 그 회사의 출자자이다.

주식투자란 요약하면 ‘주주가 되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다. 기업은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금을 받았다는 증명으로서 주식을 발행할 뿐으로 그 이후는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에는 50엔, 500엔, 5000엔, 5만엔¹⁴⁾ 등의 액면가가 있다. 액면가란 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할 때의 1주당 가격을 말한다. 이는 상법(商法)에서 정해져 있고 현재는 1주의 액면은 5만엔 이상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50엔 액면의 주식이 많고 도쿄(東京)증권거래소 1부, 2부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대다수가 50엔 액면이다. 그 중에는 세븐일레븐 저판처럼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무액면주식 이라도 주주의 권리는 액면주식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면 주주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선 첫 번째 이점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이다.

역주 14) 국내에서는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이 액면가이다

많은 이익을 올리면 그만큼의 배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회사의 주주가 되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진다.

두 번째로는 주주 우대제도이다. 이는 출자자에 대한 서비스로 자사제품으로 선물을 하거나 할인서비스와 상품권 등 우대내용은 회사마다 다르다. 쌀이나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는 등 독특한 우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세 번째 이점은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무상증자)이다. 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1.1배로 분할하여 증자하면 1000주 갖고 있는 사람의 주식이 1100주로 늘어난다. 장기간 주주로 되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주주총회에 출석할 권리와 총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일정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장부를 열람할 권리와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 등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주식투자는 주식 자체의 가격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2>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주주의 이점은?	
①	기업 이익을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②	주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③	무상증자가 있으면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해산될 때 잔여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⑤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등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
⑥	주가 상승으로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상승에 의한 매각차익을 노려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Q)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식투자자로 돈을 번 사람은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그 차익을 얻고 있다. 반대로 주가가 비쌀 때 사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팔면 그 차액 분만큼 손해를 본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와 전혀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는 종목을 과감히 포기했을 때 등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마지못해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쌀 때에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실은 벌써 오를 대로 올라 그 이상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거나 모처럼 싸게 사더라도 '아직 더 오를 것이다'라는 욕심이 지나쳐 팔 시기를 놓쳐 버려 가격이 하락해 버린 경우도 다반사이다. 또 싸게 사려고 해도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 등 나쁜 뉴스만이 거론될 때에는 좀처럼 주식투자에 도전할 수 없다. 역으로 주가가 점점 상승을 계속할 때에는 '나도, 나도'하고 사람들이 사러 몰려든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일 것이다.

결국 모두가 살 때는 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있는 시기이다. 반대로 그 누구도 주식을 돌아보지 않을 때야 말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자세로 비교적 쌀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를 실현할 지름길이다.

Q) 주가는 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주가는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기 높은 상품을 꼭 가지고 싶지만 상품이 많지 않아 좀처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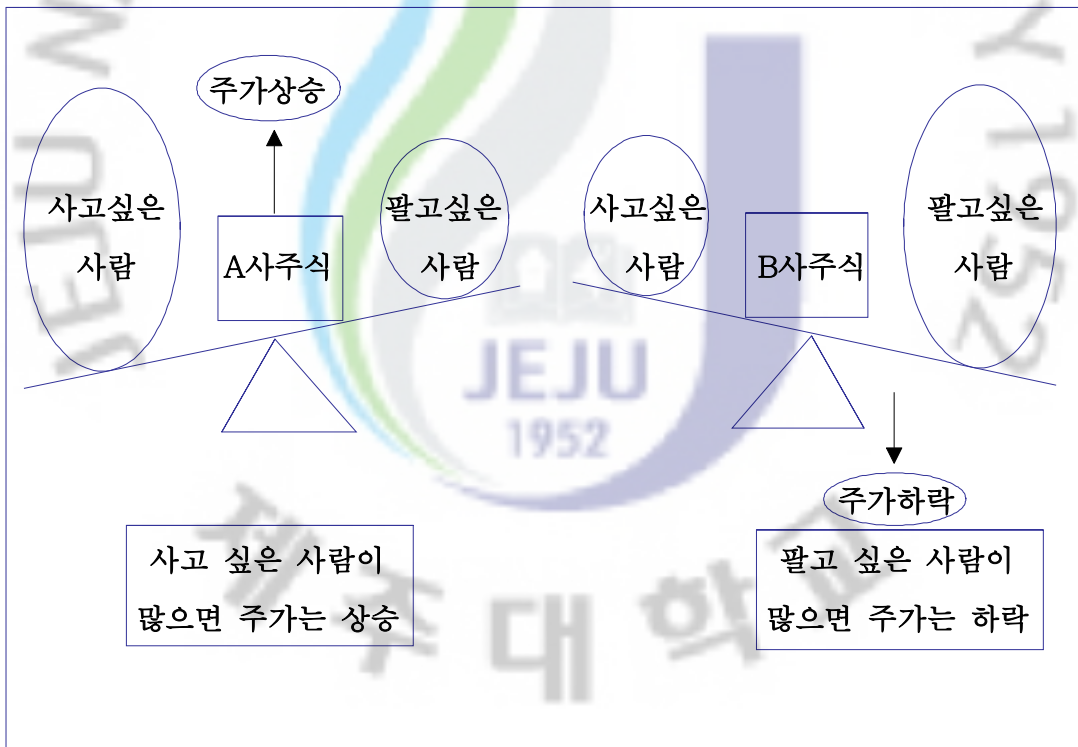
지금 당장이라도 가지고 싶으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살 테니까 팔아주세요'라고 말 할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려는 사람이 쇠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여 인기가 높은 주식의 가격은 점점 상승한다.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경우는 ‘인기가 없어서 조금 싸게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싸도 좋으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여 가격이 내려가면 ‘이 가격이라면 사도 좋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래가 성사된다. 이렇게 주가는 결정된다.

그럼 왜 인기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다. 주식투자는 ‘장래에 비싸지면 판다’라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래 인기가 더 많아지겠지’라는 종목을 투자자는 노리고 있다. 예를 들어 신상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은 기업과 새로운 사업 전개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 종목은 인기를 얻고 주가도 올라간다.

<그림3> 주식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된다.



Q)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주식투자를 시작할 자금은 목표로 한 종목의 주가와 거래단위로 결정된다. 거래단위란 1회의 매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식수를 말한다. '1000주 단위'인 종목이라면 최저 1000주를 매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가가 500원으로 1000주 단위의 종목이라면 구입 대금은 50만엔이 된다. 주식매매에는 그 외에 주식위탁 수수료(+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만큼 플러스한 금액이 있으면 투자를 시작 할 수 있다.

거래단위는 액면가 50엔 주식이라면, 1000주 단위가 주류이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 단위주 거래에 많은 액수의 금액이 필요한 종목도 많아졌기 때문에 더욱 매매하기 쉽도록 100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거래단위를 낮추는 종목도 많아지고 있다.

그 외에 500엔이 액면가라면 100주 단위, 액면가가 5만엔이라면 10주 단위, 50만엔이 액면가라면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투자하기 전에 주가와 거래 단위를 확인하고 나서 주문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형 증권회사와 중견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미니주식 투자는 통상적인 거래 단위의 10분의 1의 주식수로 거래가 가능하다. 배당도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상응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미니주식으로 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이다.

소액으로 가능하다고는 해도 전 재산을 주식투자에 쏟아 붓는 것은 안 된다. 우선 여유자금일 것이 제 1 조건이다. 예비 생활 자금, 2~3년 안에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주택취득용 자금, 자녀교육비 등을 확보한 후 나머지가 투자해도 좋은 금액이다. 30대라면 여유 자금은 적더라도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수입도 지금부터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도 OK.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유자금 액수는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연금 생활을 시작할 연배라면 여유자금 전체에서 본 주식투자 비율은 20%정도로 억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림4> 주식을 살 때 필요한 금액은?

필요한 돈은.....

약정대금 + 주식위탁 수수료

약정대금 = 주식 그 자체의 대금 = 매매가 성립한 가격 × 주식수
 주식위탁 수수료 = 약정대금의 1.15%인 경우
 ※ 주식위탁 수수료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400엔짜리 주식을 1000주 사면.....

약정대금 = 400엔 × 1000주	—————	40만엔
주식 위탁 수수료 = 40만엔 × 1.15%	—————	4600엔
소비세 = 4600엔 × 5%	—————	230엔
합 계		40만 4830엔

Q) 은행과 증권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역시 은행 쪽이 ‘안전’한가?

은행과 증권회사는 양쪽 다 우리들의 소중한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지만 ‘은행은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지만 증권회사는 약간 문지방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확실히 은행은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등 ‘돈을 안심하고 맡긴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예금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맡긴 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 다만, 은행은 우리들의 돈을 소중히 보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은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운용하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들은 은행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도구(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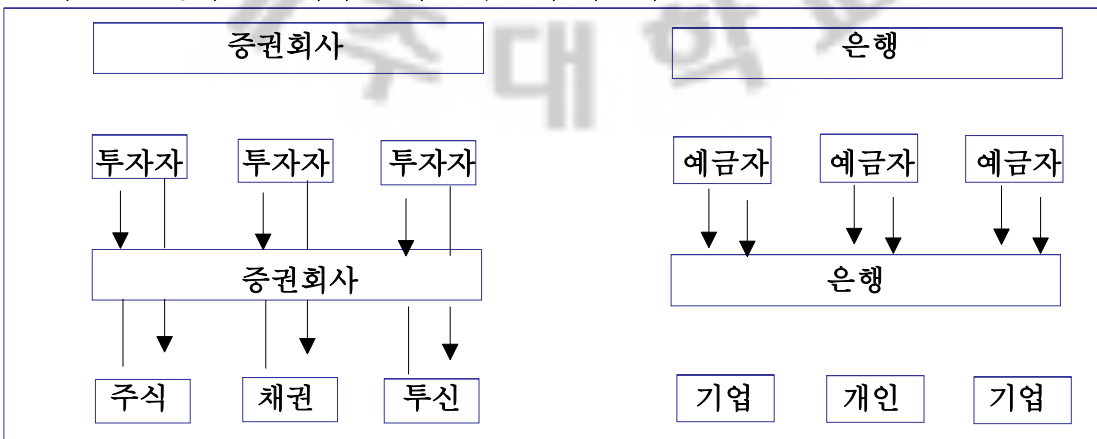
은행에 빌려주고 있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고 있다. 다만 원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너무나 적은 액수이다. 물론 대손(貸損)과 운용 실패로 손해를 본 경우는 은행 자신이 당연히 위험을 부담하지만 그대신 은행이 크게 돈을 벌어도 예금자는 약정한 이자 이상의 이익금은 일절 받을 수 없다.

한편 증권회사는 은행처럼 우리들의 돈을 수탁하는 금융기관은 아니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투자신탁 등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매매할 때의 창구기능을 하고 있다. 돈을 증권회사에 예치해도 그것을 증권회사가 운용하여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주문한 상품(예를 들어 주식) 구입에 쓰인다. 대금(代金)을 대신하여 투자자는 매매한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받고 그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수익이 많아진다. 그 대신 은행처럼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는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신 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증권회사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점이 은행과의 차이점이다.

단지 구입한 유가증권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보호예치’라고 하여 증권회사에 구입한 유가증권을 보관해둔다. 이처럼 ‘돈을 지불했을 뿐 상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돈을 맡긴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상품’을 구입했고 증권회사 자체가 돈을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

(‘예탁금’ 등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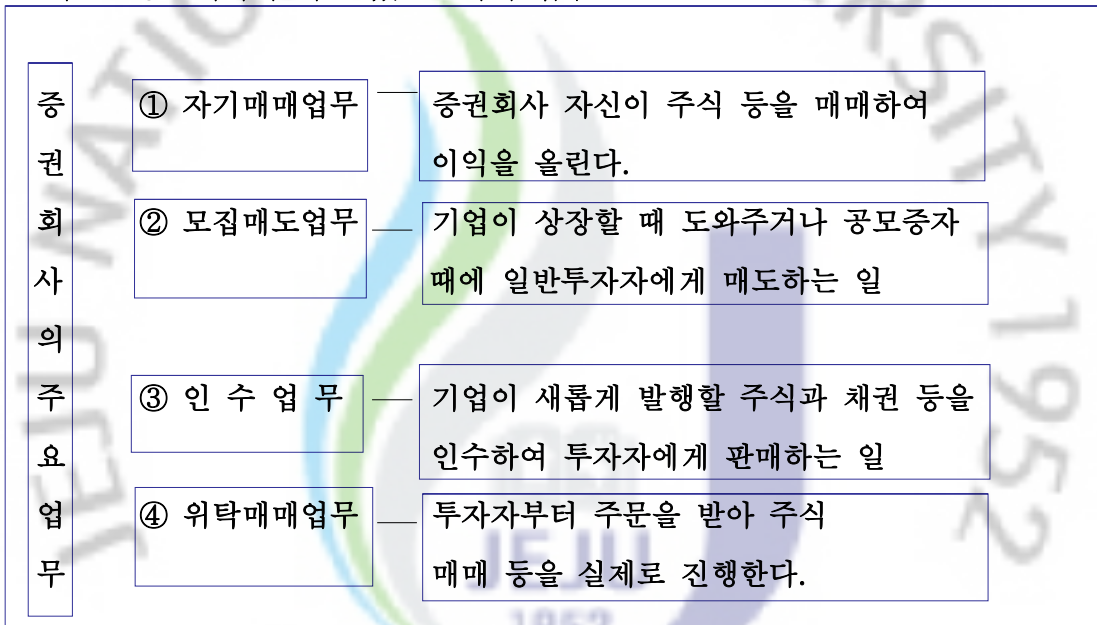
<그림5> 은행과 증권회사는 이런 부분이 다르다.



증권회사는 투자 창구이다.
수수료를 받고 매매를 주선한다.
벌어들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위험도 투자자들이
부담한다.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모은 돈을 은행이
주체가 되어 기업 등에 융자한다.
위험부담은 은행이 지는 대신 이자율은 낮다.
은행은 많이 벌어도 투자자는 어떤 여분의
이익도 받을 수 없다.

<그림6> 증권회사가 하고 있는 4가지 업무



Q) 여러 증권 회사가 있지만 어떤 증권회사와 거래하면 좋은지?

노무라(野村), 닛코(日興), 다이와(大和) 등 대형 증권회사로부터 지방 증권회사까지 전국에는 많은 증권회사가 있다. 단 이름이 알려진 대형 증권회사쪽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 다양한 투자를 하고 오랜 기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그 자체의 안전도(安全度)만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증권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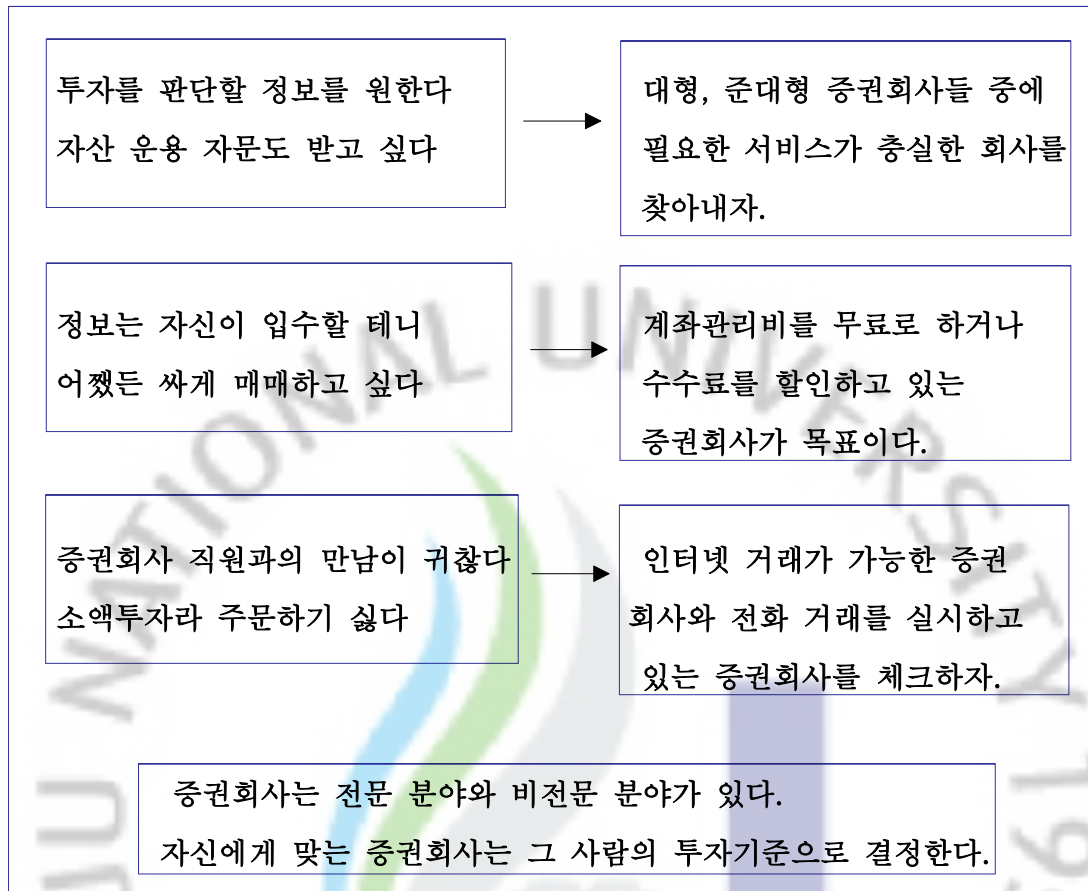
각각의 증권회사는 전문 분야와 비전문 분야가 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증권회사를 고르는 포인트는 우선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상품을 취급하는가 여부로 체크할 수 있다. 주식매매는 어느 증권회사에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예산이 적어 미니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니주식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미니주식은 증권회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가 소액으로 분할하여 판매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증권회사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다. '누적투자' 등도 소규모 증권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상대인 증권회사는 필연적으로 한정되어져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객을 응대하는 스타일과 비용(Cost)을 들 수 있다. 모은 자산을 운용하고 싶어서 자산관리 등의 투자 자문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산관리가 충실하고 실적이 있는 증권회사가 적당하다. 투자를 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하고 바란다면 비용보다 정보 내용의 충실도를 중시했으면 한다. 정보는 스스로 수집할 테니 어쨌든 수수료 등의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계좌관리비와 매매위탁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매매위탁 수수료는 99년 10월부터 완전 자유화되었다. 그와 함께 '어쨌든 비용은 내리지만 정보 제공은 일절 없다'라는 증권회사도 등장하는 등 증권회사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증권회사라도 각 지점에 따라 분위기와 영업 스타일이 다르다. 증권회사에서는 고객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기본이다. 지점 분위기를 파악하기까지 처음에는 복수의 증권회사와 거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분위기와 담당 영업사원의 능력, 서로간의 호흡 등을 체크한 후에 거래 증권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매매주문을 하나하나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은 귀찮고 싫다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때에는 거래 비용을 확인 하는 것은 물론 거래 가능시간, 사용하기 편한 화면 작동법 등도 각 회사의 홈 페이지 등을 보고 비교해 두자.

<그림7> 특성을 파악한 후 증권회사를 선택하자.



Q) ‘주식시장’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상장’하는 이점은?

실제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는 TV 등 뉴스에서 볼 기회가 많은 도쿄(東京) 증권거래소 외에 오사카(大阪) 증권거래소, 나고야(名古屋) 증권거래소 등 현재 전국에 총 8군데가 있다. 그 중에 도쿄 증권거래소(東証)의 거래량이 단연 제일 많고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의 80% 이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우리들이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한 주식은 이러한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다. 주식회사라고 하여 모든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토리(サントリー)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기업일지라도 상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구입하기에는

영업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영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피하는 의미로 구매여 상장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회사의 주식을 일반투자자가 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림8> 증권거래소는 전국에 8개소가 있다.



Q) 뉴스에서 흔히 듣는 ‘닛케이(日経) 평균’이란?

TOPIX와 NY다우지수와는 어떻게 다른가?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닛케이(日経) 평균 주가¹⁵⁾’이다. 많은 투자자가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日本經濟新聞社)가 발표하는 주가지수에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 중 225종목을 채택하여 산출하는 ‘닛케이 225종 평균주가(日経225種平均株価)’ 외에 50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닛케이 500종 평균주가(日経500種平均株価)’ 등이 있다. 신문과 TV뉴스 등에서 ‘닛케이(日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닛케이 225종 평균주가(日経225種平均株価)’를 가리킨다.

이 닛케이(日経) 평균은 채택된 종목의 주가를 단순히 평균한 것이 아니고 개별 거래조건 차이점과 과거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주가동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되어 있다.

채택 종목도 원칙적으로 매년 일부를 교체하고 있지만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요즘도 오래된 업종의 비중이 높은 것 등 업종에 대한 편중이 눈에 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할 데이터로서는 유효하지만 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 닛케이(日経) 평균에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TOPIX 등의 다른 지표와 함께 흐름을 파악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덧붙여 TOPIX라는 것은 ‘도쿄(東京) 증권거래소 주가지수’를 가리킨다. 도쿄(東京) 증권거래소가 매일 발표하는 지수로 도쿄(東京) 증권거래소 1부의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지수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전체의 실태를 알 수 있다.

도쿄(東京)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외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지수와 업종별지수도 발표하고 있다. 도쿄(東京) 증권거래소 이외에도 장외시장 지표로서 닛케이장외평균(日経店頭平均)¹⁶⁾, 장외자스닥지수(店頭ジャスダック指数)¹⁷⁾ 등이 있다. 또 해외주식시장에서도 닛케이(日経) 평균과 같은 지표가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장의 ‘다우존스공업주¹⁸⁾’와 ‘S&P500¹⁹⁾’ 등이 유명하다. 현재 시가총액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장외시장인

역주 15) 1975년 5월부터 일본경제신문사가 작성 발표하고 있는 가격가중평균 주가

역주 16) 일본은행을 제외한 장외등록주의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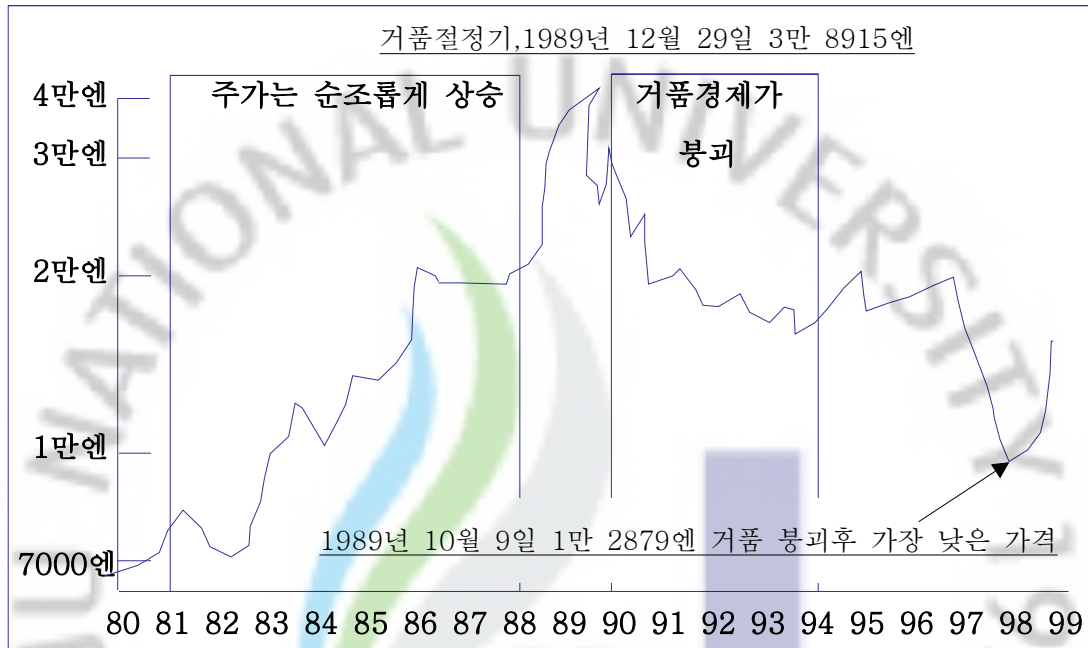
역주 17)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 전종목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으로 산출된 지수(일본 최대규모의 벤처 시장)

역주 18)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표본으로 하여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

역주 19)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Standard and Poors(S&P)가 작성한 주가 지수로 500개 대형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

‘나스닥’의 나스닥 지수도 주목했으면 하는 지수이다. 특히 미국의 다우 평균, 나스닥 지수는 다음 날 도쿄(東京)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지와 경제 뉴스 시간에도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자.

<그림9> ‘닛케이(日経) 평균’은 일본 주식 전체의 움직임은 아는 기준이다



‘닛케이(日経) 평균’은 일본의 주요 225사의 주가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본주식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기준이 된다.

Q) 만약 본인이 매수주문을 했을 때, 어떤 구조로 거래 가격이 결정되는가?

주가는 하루의 거래시간 내에서도 시시각각으로 가격이 변하고 있다. 그럼 자신이 주식을 매매하려 할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주식 주문 방법은 미리 매매가격을 결정해서 주문하는 ‘보통가²⁰⁾’주문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하는 ‘시장가²¹⁾’주문이 있다.

보통가 주문인 경우에는 ‘OO회사 주식을 1000주, 520엔으로 사 주세요’처럼 자신이 사고 싶은 가격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가격으로 팔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역주 20) 고객이 주식이나 상품의 매매를 위탁할 때 값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방식 (=지정가)
 역주 21) 물품과 수량만 정하고 가격은 정하지 않고 그 때의 시세로 매매하는 주문 방식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주문한 가격에 의해 매매 시기를 놓쳐 버릴 우려도 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가격으로 팔리면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여 낸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보다 높은 탓으로 팔 기회를 놓쳐 가격이 더 하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시장가'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날의 거래 상황에 맞추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나친 가격이 붙는 경우는 없지만 생각외의 높은 가격으로 사게 되거나 예상 이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는 등 생각대로의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적은 종목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주가 변동 폭이 크다. 이러한 종목은 시장가 주문이 아닌 보통가 주문으로 거래하는 편이 무난할 것이다.

가격 지정 방법에 의해 매매가 성립되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 가격에서는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우선이고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부터 거래가 성립되게 되어있다. 같은 가격으로 많은 주문을 했을 경우는 주문한 시간이 빠른 사람이 우선 된다.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한 사람이 많은 경우 그 가격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나중에 주문한 사람은 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시장가 주문과 보통가 주문 양쪽을 모두 했을 때는 시장가 주문이 우선시 된다.

Q)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쯤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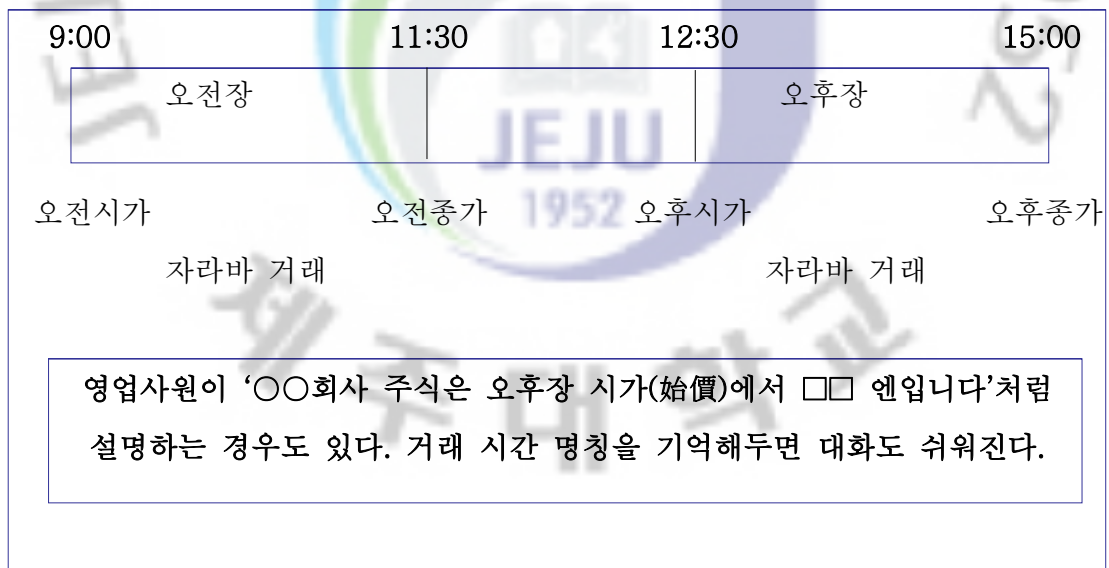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연말연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있고 오전은 오전장(前場)이라 하여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가 거래 시간이다. 한 시간 휴식²²⁾을 한 후 오후는 12시 30분부터 3시까지이다. 이것을 오후장(後場)이라 한다. 오전장의 처음 매매성립 가격을 '오전 시가' 오전장의 끝을 '오전장 종가'라 하여

역주 22)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점심시간 없이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시가부터 장 마감까지 거래 시간 내에는 ‘자라바 거래’²³⁾가 이루어진다. 오후장도 마찬가지로 ‘오후 시가’로 시작하여 ‘자라바 거래’가 있고 ‘오후 종가’로 끝난다. 신문 등에서는 오전 시가와 오후 마감 종가가 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뉴스 등에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도할 때에는 그날의 종가(결국 오후장의 마지막 거래 가격)가 발표된다.

하루의 거래 시간내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쉬운 것은 전날 오후장이 끝나고 당일 오전장이 열리기까지 주문이 밀려 있는 ‘오전 시가’이다. 특히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시장가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매매 주식수가 많은 시가로 주문해 두면 안심이다. 자라바 거래에서는 여러 종류의 가격 주문을 하기 쉽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을 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 또 그날 시장 상황을 보며 매매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거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장마감 때에도 비교적 많은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림10>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



역주 23) 일본 선물 거래 시스템에는 이타요세 거래(板寄世取引)와 자라바 거래(ザラバ取引)가 있다. 이타요세 거래(板寄世取引)방식은 도쿄 곡물 상품 거래소와 중부 오사카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일본 독자적인 거래 방법이며 거래가 이루어지기전 거래소에 의해 임시 가격이 제시되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일치할 때까지 가격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자라바 거래(ザラバ取引)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래 방식으로 시가와 종가 사이에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Q) 전문가조차도 어렵다고 하는 주가 예측,

초보자는 무엇을 참고로 하면 좋은지?

주식투자를 할 때는 눈여겨 본 종목의 주가(株價) 동향만이 아니고 시장 전체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별종목 동향은 시장 전체의 흐름, 그 기업이 속한 업계 전체의 흐름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전체에 자금이 그다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상 실적이 다소 좋아도 주가는 그에 상응할 만큼 오르지 않고 거품 붕괴 이후처럼 일본 전체가 불황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때에는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에 전혀 몰리지 않아서 시장전체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은 경기와 채권시장, 금리, 환율, 정치 정세 등에 의해 변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수익이 호전되므로 상승기대가 높아져 주식시장에 돈이 점점 유입되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끌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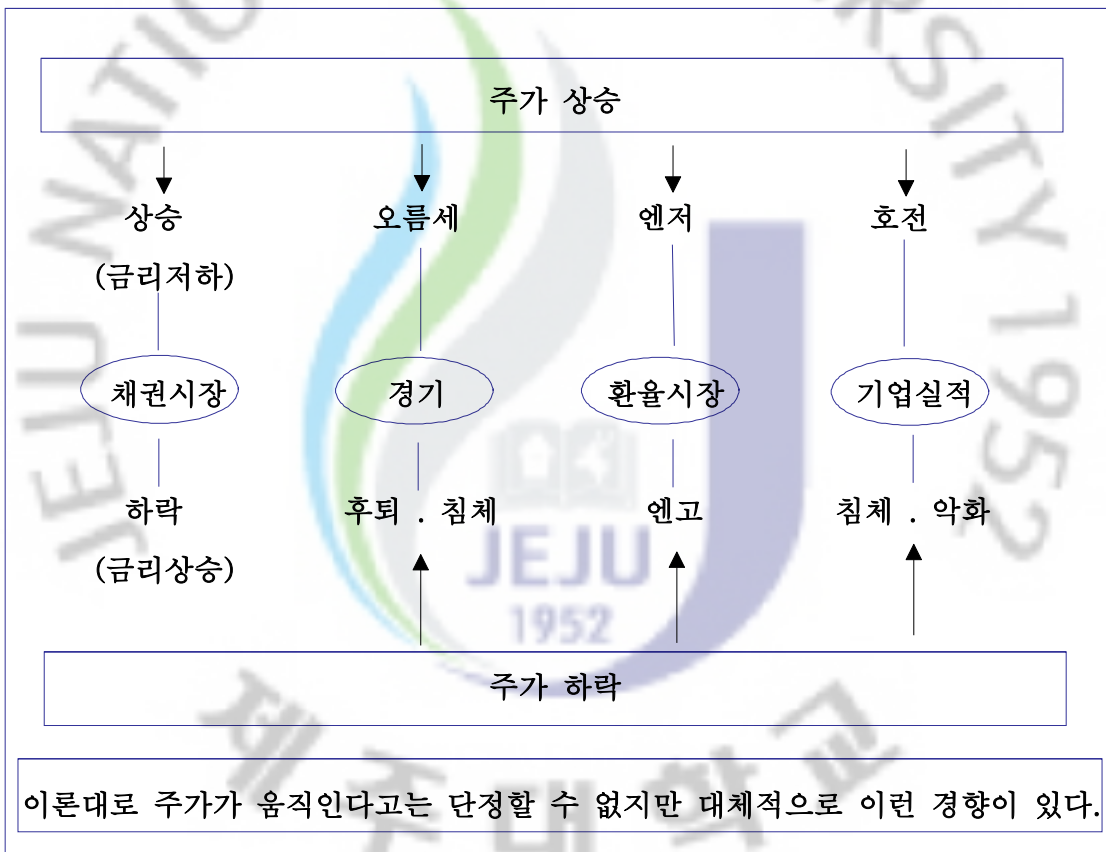
그럼 예금 등의 금리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순히 말해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한다’가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채권시장에 돈이 모여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이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율)이 하락한다.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면 ‘이런 낮은 이자밖에 받을 수 없다면 위험이 있더라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라는 사람이 많아져 돈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단지 최근 몇 년은 초저리 금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다. 주식에 대한 기대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99년이 되어 간신히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반드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환율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일본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수출 비율이 큰 회사는 엔고(円高)가 되면 이익이 적어진다. 결국 엔고(円高)→주가 하락처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어떤 요인으로 엔시세가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변한다. 엔저(円低)가 진행되어도 그 이유가 ‘일본 경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다’라는 상황에서는 주가 상승에 이어지지 않는다.

의외로 ‘날씨’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년은 폭염(暴炎)이 될 것이라는 장기에보가 발표되면 ‘그럼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잘 팔리겠구나.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고 수영장도 점점 매출이 늘어날지도……’하고 계절상품의 판매 상승이 기대되어 관련 종목이 상승한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워지면 상승 기대종목이 늘어나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11>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경제, 금융동향에 영향을 받는다.



Q) 무엇을 참고로 종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영업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도 되는지?

주식투자는 종목 선택이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렵다.

도쿄(東京)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되어진 종목만도 1000개 이상이고 들어 본 적도 없는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 중에서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것은 이만한 저만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종목을 연구하려고 ‘회사 사계보(四季報²⁴)’를 보더라도 두꺼운 책자에서 투자 종목을 찾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증권회사 영업사원과 주식평론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매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신이 납득한 종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공은 있을 수 없고 만일 실패했을 때에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보투자자는 무리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종목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지? 기업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생활과 관련된 종목은 주변에 많다.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자주 이용하는 가게의 서비스와 상품, 주부들끼리의 수다 중에 화제가 되는 상품 등을 종목 선택의 소재로 삼는 방법도 있다. ‘이 물티슈는 청소하는데 편리하고, 가격도 적당하니 잘 팔릴 것 같다’라든지 ‘이 회사의 새로운 세제 광고는 웬지 사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네’라든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이니까 매출이 늘어 날 것 같아’라든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타켓을 맞추어 사계보(四季報)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면 투자를 해 볼것을 권한다.

Q)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만약 도산했을 때 그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가 도산하면 그 회사의 주식은 가치가 없어지고 주가는 0엔이 된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종목을 선택할 때 실적과 장래성을 신중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주주는 회사의 출자자이고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이상 그 회사의 경영에도 책임이 있다. 출자한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아무리 출자했던 회사가 큰 부채(負債)를 껴안고 도산했다

역주 24) 한국의 기업 편람에 해당함

라도 주주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고 재촉 받는 경우는 없다. 주주는 그 출자한 범위까지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채(負債)가 있어서 도산한 경우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0이 되는 것만으로 끝난다.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도산한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식 투자에는 이런 위험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Q) 주주의 이점중 하나는 ‘배당’,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주가 누릴 수 있는 대표적 권리의 하나가 ‘이익배당 청구권’이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수익을 내어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배분하여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상응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이익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금액도 증감(增減)하고 영업실적에 따라서 무배당(배당이 생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단지 동업 타사(同業他社)²⁵⁾와의 균형과 과거 배당 상황 등을 고려하기 위해 이익의 증감(增減)에 연동시키지 않고 배당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회사도 있다.

배당은 ‘년 10엔’ 등 1주당 금액으로 표시된다. 년 10엔 배당되는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은 10엔×1000주=1만엔이다. 은행 예금이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에서부터 20%의 원천세(源泉稅)가 징수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8000엔이 된다.

배당은 회사 결산시 주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된다. 현재는 결산을 년 1회로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3월과 9월처럼 배당을 2회 나누어서 지불하는 회사가 많다. 이 경우, 결산시 이외에 배분되는 배당을 중간 배당이라고 한다. 이외에 창립 100주년 등의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배당에 더 얹어 기념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Q) 미국주식은 호황이라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해외주식을 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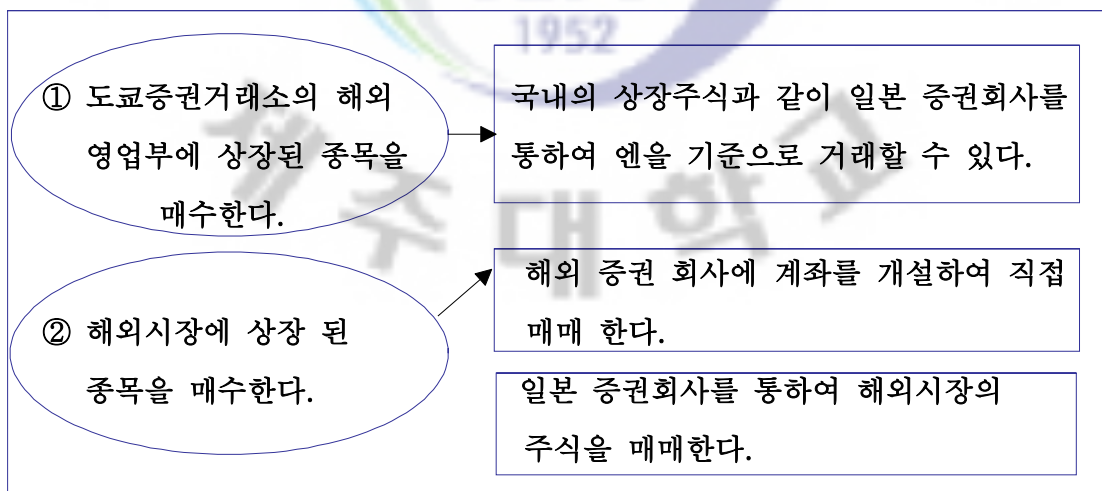
역주 25)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일본기업보다 활기가 있는 미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도쿄(東京) 증권거래소에도 해외영업부가 있어서 해외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해외주식이라도 엔을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고 국내 종목과 거의 다름없이 거래할 수 있다. 기업 정보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심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단지 현재 상장종목은 44종목이다. 매매액도 적어서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다른 종목을 간단히 매매하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거래로 외국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방법도 있다. 영어에 그다지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역시 일본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는 편이 무난할 것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계좌와는 별도로 ‘해외주식용 계좌’가 필요하다. 후에 ‘뉴욕 시장의 ○○종목을 ○○주 사고 싶다’하고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종목, 거래 주식수,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면 된다. 단지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는 시차가 있는 점이 힘든 점이다. 실시간으로 매매주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수익을 얻기에는 부적당하다. 또 매매는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 위험도 있다. 최근엔 달러를 기준으로 MMF²⁶⁾로부터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등의 구매가 가능한 증권회사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품에 엔고(円高)시 돈을 모두 투자하여 매매 타임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

<그림12> 해외 주식을 사고 싶은 때에는



역주 26) Money Market Fund: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

해외시장 종목은 달러를 기준으로 매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율 위험에도 주의해야한다

Q) 주식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기관투자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기관투자자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로 올린 수익을 주요 사업 수익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요컨대 생명보험회사와 투자신탁,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 등이다.

개인 투자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많고 보유 주식수도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기관투자자와는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시장에서 운용하고 있고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특히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 그 보험회사가 운용에 실패하여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연기금은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엄밀히는 신탁은행과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 운용) 운용실적이 나빠지면 연금재원이 줄어들어 장래에 우리들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거나 연금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기관투자자는 이를테면 우리들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림13> 기관투자자라 불리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기관투자자라 불리는 사람들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	↓
생명보험회사	연금자금과 보험의 적립자금
투자신탁위탁회사	투신의 운용자금, 연금자금
신탁은행	연금과 간이보험 자금 등
사업법인	개별 기업자금
외국인 투자자	해외 연금자금과 투신운용자금 등

기관투자자는 방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동료와 의논하며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클럽’의 이점과 단점

투자클럽이란 ‘개인투자자가 주식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자금을 각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클럽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investment club으로 넓게 정착되어있고 일본에서는 1997년 7월에 투자클럽을 설립하여 자금을 운용해도 된다는 인가가 내려졌다.

자금을 서로 모아 ‘모두가 투자’, 정보교환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도 된다.

투자클럽의 이점은 동료와 함께 경제와 증권시장을 넓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 몇 사람이 모여 투자처를 어찌할까 의논하고 돈을 각출하여 투자하는 클럽이다.

투자클럽에서는 클럽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회원이 돈을 각출하여 투자하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소액자금이지만 모두가 자신이 맡은 금액을 모으면 많은 금액이 되고 개인으로서는 좀처럼 살 수 없는 고가의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증권회사 중에는 투자클럽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공부방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준비해준다. 최근엔 TV와 잡지에서 ‘여성만의 투자클럽’ 등이 소개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지도는 조금씩이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모두가 결정 한다’는 것의 문제점, 자신이 판단하는 편이 역시 나은가?

처음 주식투자를 한다고 할 때 자신 혼자만의 판단으로 ‘반드시 이 종목을 사자’라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클럽 동료와 의논하여 종목을 선택한다면 마음이 든든하고, 투자하는 금액이 소액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안심이다.

단지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투자처를 결정할 때 ‘A사의 주식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과 ‘B사의 주식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다고 하자. 결국 A사로 결정되어 투자했지만 A사는 가격이 하락했고 B사가 가격이 상승했다. 그 경우 처음 B사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사람이 ‘이 썸에서 팔자’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고 하자. 만약 그 주식이 급락하면 ‘이 썸에서 팔자’라고 말한 사람은 ‘역시 내가 말한 대로 되었어’라고 분한 마음을 느낄 것이다.

정보교환을 하거나 함께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돈과 관련되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겨나는 법이다.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동료야 아닌 이상 자신이 판단하며 투자 하는 편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阿部)



日本語抄録

本書は、超低金利時代の新たな財テク手段として、ハイリスクハイリターンの特徴をもつ株式投資を目指す株式投資の初心者が持つべき心構えと投資スタンスを具体的に提示している。

株式は50%、60%、時には2倍以上に値上がりすることもあるれば、逆に半分に下落したり、その会社が倒産して投資した資金が0になってしまうこともある。

株式投資の初心者の中には、一発大儲けしてやろうと考える人もいるだろうが、旅行の資金作りのように、自分なりの目的を定めて投資の基準を明確にすることが、何よりも大事だ。投資お基準を決めずに「みんながやっているから自分もやろう」とか「人に『株は儲かるよ』と勧められたから」という理由で始めたのでは良い結果は出ない。確実な目標を立て、余裕資金で株式投資を始める安全な投資こそが、資産を増やす良い方法である。

したがって、株式投資を始める第一の条件は、現在の生活、貯蓄、そして精神的な部分も含めて「余裕がある」ことであり、第二の条件は株式投資に興味をもてるかどうかである。

日本は、失われた10年の間、大切な資金が半分以下になってしまった悲惨な例が数多くあっただけに、株式の基礎知識もないまま株式投資を始めても、良い結果を得ることは難しい。

株式投資をする時は、目当ての銘柄の株価の動きだけでなく、市場全体の流れをチェックすることも重要だ。個別銘柄の動きは市場全体の動き、その企業が属する業界全体の動きなど、さまざまな影響を受けるからである。

株式市場全体に資金があまり流れて来ない状況では、業績見通しが多少良くても株価はそれほど上がらず、バブル崩壊以後のように日本全体が不況の時は、投資資金が株式市場に全く集まらずに、市場全体が低迷することもある。超低金利が続いているにも関わらず、株式市場があまり活発でないのは、株への期待より将来に対する不安が大きいからであろう。必ずしもセオリー通りに動かないのが株式市場である。

少額でできるということが株式投資のもう一つの特徴であるが、全財産を株式投資に注ぎ込んではいけない。まず、余裕資金であることが第一条件だ。予備の生活資金、2~3年内に必要な可能性のある住宅取得資金、子供の教育資金などを確保したうえで、残ったものが投資可能な資金である。30代なら余裕資金は少なくても、長期投資が可能だし、収入もこれから増やせるので、万が一失敗しても取り戻せる可能性が高い。したがって、株式投資の割合を高くしてもいいだろう。逆に年齢が上がるほど余裕資金の額は多くなるはずだが、あまり大きなリスクをとるのは危険である。年金生活に入る年齢なら、余裕資金全体から見た株式投資の割合は20%程度に押えておいたほうがいいだろう。

このように、株式投資はいつもハイリスクハイリターンがついてくるので、初心者が株式投資をするときは、あまり無理をせず、自分の責任が伴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だろう。